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중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362호 [루체 제25140호] 주제 104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간직하고 대외건설지도부원 최영근은 조선혁명박물관을 태양조선의 대국보관으로 꾸리는 사업에 많은 자제와 후방물자를 지원하였다.

평양민속공원 강사 김종영, 김원균명청 음악종합대학 관원 악단 연주가 유영광은 가정들에 돌려주신 백두산찰출원인들의 크나큰 사랑과 밀음에 보답할 일념밑에 주체사상교양의 전당을 더욱 빛내이는데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주체의 혁명전통을 굳건히 읊하고 수령님들의 찬양에 빛나는 사업에 아낌없는 사랑을 바치고 있다.

경총식당 로동자 정창미는 백두산청년강국에서 살며 투쟁하는 청년전투원에게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 세보를 끌없이 빛내이는 사업에 깨끗한 향상을 바치었다.

고무하였다.

본사기자

당의 령도밑에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여나가자

철령아래 사회주의선경, 인민의 리상향을 꽂피워가는 백두산건설부대의 위훈

고산과수종합농장 능력확장공사에 면적 618만 평에 걸쳐나선 618건설돌격대원들

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백록같은 혁명정성을 다해 나갈 데임안하고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우리 당의 인민son, 인민 사랑의 뜻과 정을 심장에 새긴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살립집과 공공건물을 사회주의의 문명국의 체제에 맞게 개건하기 위한 사업에 온기와 열정을 아낌없이 풀어나섰다.

남포시려던 정치일군들은 전투현장을 타고나와 생활기, 전창길을 앞장에서 해치면서 인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한 씨앗들과 사회주의재부들을 마련하자고 돌격대원들을 끌어들이고자 했던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애교와 난관이 가로놓일 수도 필승의 신념과 비상한 각오를 더 굽게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획과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탕정신과 자력자강의 기품을 세워온 높은 창조력을 으로로 더 굽게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획과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해 7월 고산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면서 농장을 세계적인 평생학습기지로, 무릉도원으로 꾸리고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것으로 농장력을 높여나가고자 했던 것이다.

일군들은 시대적요구와 건설대상의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공법



면모를 일신한 축산기지



인민의 리상향으로 새롭게 꾸려진 고산과수종합농장

문명한 산간도시로 면모를 완전히 일신

삼지연지구 개건현대화건설공사 완공

는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린 혁명의 성신 백두산아래 첫 동네인 삼지연군에서부터 사회주의만세소리로 전파되어 하루는 그것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였다. 그려면서 삼지연군을 보다 흥륭히 꾸리는 대해서나서는 사업을 제시하고 그 수행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을 받들고 공사에 원동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힘찬 돌격전을 들이대여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2월말까지 63개에 대한 개건현대화설공사를 전부 끝내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삼지연일대는 어디 가나 항일혁명선열들의 밤자취가 깃든 혁명지진인 것만큼 살기 좋은 곳으로 꾸려져야 한다.』

몇해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고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여 둘째풀을 원료로 여러 가지 청량음료들을 팽창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어놓았다.

전력공업성, 전자공업성, 기계공업성, 향강도민위원회에

는 강력한 기술집단을 중소형 발전소에 파견하여 밤에 한 편

교과부에 보수공사를 펼쳐

와 가능성으로 충동원하면서 칠

해주도록 하였다. 내각현장지휘부에서는 삼지연군의 전반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현대화된

맞게 군에서 자체로 그 운용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기술전과

짜고들었다. 특히 이미 마련된

종사들이 대체로 흐름에 따라

여기에서 꾸려놓았는데

화를 맡은 식료일용공업성, 대

부로 일상화되었고, 그들은

제23려단의 돌격대원들

이 높이는것과 함께 설계와 시

공의 요구대로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

여지해와 정열을 다 바치였다.

삼지연학생소년궁전 개건보

수공사를 말은 청년동맹중앙위

원회일군들과 속도전청년돌격

대에서 빛나는 사업을 실현

겨울철조건에서 《애국풀》모생산을 늘인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

하여 모생산을 늘리기 위한 착상을 하였다. 그리고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협력으로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들은 대량의 냉동과 파이프를 거쳐 냉동하고 생산공정을 더욱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정은동지에게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가장 결출한 평도자, 세련된 정치가,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로 2015년에 조선의 군대와 민족의 혁명정신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풍랑을 하고 계신다는 계획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당 및 국가수반들이 전문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

각하
나는 김정일대원수각하의 서거 4돐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련방
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당신과 그리고
친선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
하는바입니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수호하시고 위대한 귀국을
자주적인 나라로 전면시켜주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무비의
달력을 지니신 걸 출한 평도자로 영생하실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두 나라사
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더욱 확대발전되기를 희망
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

무함마드 부하리

2015년 11월 20일 아부자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 김정일각하께서 너무도 뜻밖이,

너무도 비통하게 서거하신 4돐에 즈음하여 각하와 그리고
귀국인민과 함께 그이께서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을 위하여
이룩하신 및 나는 업적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경제적 및 사회
적 발전을 이루하는데 위해 한 헌신의 한생을 바치시였습니다.

그이의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입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간다공화국 대통령
요웨리 카구타 무세베니

2015년 12월 3일 카풀라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동지께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파워키스딴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파워키스딴의 공산주의자들의
이름으로 당신께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4돐에 즈음하여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태양으로 저희들의 심장속에 영생하실것
입니다.

저희들은 당신께서 건강하실것과 아울러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
합니다.

경의를 드립니다.

파워키스딴공산당 위원장

쉐. 샤브돌로브

2015년 12월 15일 두샨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조선인민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은 당신께서 가려신 길로 조선인민을 이끌고 있습니다.

공업과 농업, 과학과 문화부문에서의 발전을 위한 계획들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김정은동지각하께

제1비서동지각하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각하의 서거 4돐에 즈음하여
적도기네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적도기네민주당 창건자. 위
원장인 오비앙 느케마 드리쓰고각하의 이름으로 제1비서각하께와
그리고 각하를 통하여 조선로동당과 전체 조선인민에게 가장
충심으로 되는 경의를 드립니다.

이날에 즈음하여 저희들은 조선인민의 번영을 위한 조선로동당
의 투쟁을 현명하게 평도하신 위대한 성인이신 총비서각하께와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면서 아울러 경의의 위업을 위한 귀당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적도기네민주당 총비서

헤로니모 오싸 오싸 에꼬로

2015년 12월 15일 말라보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동지께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조선인민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은 당신께서 가려신 길로 조선인민을 이끌고 있습니다.

공업과 농업, 과학과 문화부문에서의 발전을 위한 계획들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외부세력들의 끌임없는 도발에 대처
하여 국방력강화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선인민이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확신있게 나
아이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들은 귀국에 대한 련대성과 지지를 확인합니다.

경의를 드립니다.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게. 아. 쥬가노브

2015년 12월 17일 모스크바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동지께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탁월한 국가정치활동가이신
김정일동지의 서거 4돐에 즈음하여 당신께와 그리고 전체 조선인
민에게 심심한 위문을 드립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의 경제적 및 방위적잠재력을 강화하는데 자신의 한평생을
다 바치시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의 생활에서 가슴아픈 상실의
날에 저는 당신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저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조선인민이 번영
하고 나라의 문화와 인도주의, 지역적발전의 모든 영역에서 성과
를 거둘것을 축원합니다.

경의를 드립니다.

로씨야자유민주당 위원장

웨. 웨. 쥐리놉스끼

2015년 12월 17일 모스크바

뜻깊은 올해에 펼쳐진 인민사랑의 숭고한 화폭

주제 104 (2015)년,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이 창건된 때로
부터 일훈법제 4년률을 세운 우리 조국의
맑고 푸른 하늘과 같은 당기가 장중하고
고도 기세차게 펼쳐입니다.

우리 당의 붉은 기록에 새겨진 글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민은 그 기록에 스며있는
불멸의 글밭을 보고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
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이 글방이 어려웠는것으로 하여 우리
의 조선로동당기념이 그토록 불개 타고
기록속의 당마크가 금빛으로 더욱 찬란
히 빛을 뿐이라는 것 아니라,

당창건 70돐을 풀길에 경축한 올해
천만군민은 위대한 당에 대한 고마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더없이 흠모
와 감사의 정으로 하여 솟구치는 경쟁을
금치 못하였다.

이해는 어떻게 훌륭인가.

평범한 한가정의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 기울인 정성, 바친로고를 되새겨
보는것도 사실 가슴뻐근한 일이다.

하물며 온나라 모든 부모들의 사랑을
합친것에도 비길수 없는 무한대한 사랑
으로 2015년을 수놓으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자욱을 어떻게 다 해야
될수 있으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함께
수령님의 영상으로 하여 더없이 훌륭한
수령님들이 모시듯이나가는것이 우리
인민의 인민관입니다.》

누구도 몰랐다.

새해의 첫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평
양국민, 애육원, 응원원을 찾아주실줄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함께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나가는것이 우리
인민의 인민관입니다.》

누구도 몰랐다.

새해의 첫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평
양국민, 애육원, 응원원을 찾아주실줄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함께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나가는것이 우리
인민의 인민관입니다.》

누구도 몰랐다.

새해의 첫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평
양국민, 애육원, 응원원을 찾아주실줄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함께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나가는것이 우리
인민의 인민관입니다.》

누구도 몰랐다.

새해의 첫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평
양국민, 애육원, 응원원을 찾아주실줄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함께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나가는것이 우리
인민의 인민관입니다.》

누구도 몰랐다.

새해의 첫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평
양국민, 애육원, 응원원을 찾아주실줄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함께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나가는것이 우리
인민의 인민관입니다.》

누구도 몰랐다.

새해의 첫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평
양국민, 애육원, 응원원을 찾아주실줄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함께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나가는것이 우리
인민의 인민관입니다.》

누구도 몰랐다.

새해의 첫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평
양국민, 애육원, 응원원을 찾아주실줄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함께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나가는것이 우리
인민의 인민관입니다.》

누구도 몰랐다.

새해의 첫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평
양국민, 애육원, 응원원을 찾아주실줄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함께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나가는것이 우리
인민의 인민관입니다.》

누구도 몰랐다.

새해의 첫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평
양국민, 애육원, 응원원을 찾아주실줄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함께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나가는것이 우리
인민의 인민관입니다.》

누구도 몰랐다.

새해의 첫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평
양국민, 애육원, 응원원을 찾아주실줄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함께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나가는것이 우리
인민의 인민관입니다.》

누구도 몰랐다.

새해의 첫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평
양국민, 애육원, 응원원을 찾아주실줄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함께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나가는것이 우리
인민의 인민관입니다.》

누구도 몰랐다.

새해의 첫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평
양국민, 애육원, 응원원을 찾아주실줄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함께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나가는것이 우리
인민의 인민관입니다.》

누구도 몰랐다.

새해의 첫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평
양국민, 애육원, 응원원을 찾아주실줄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함께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나가는것이 우리
인민의 인민관입니다.》

누구도 몰랐다.

새해의 첫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평
양국민, 애육원, 응원원을 찾아주실줄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함께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나가는것이 우리
인민의 인민관입니다.》

누구도 몰랐다.

새해의 첫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평
양국민, 애육원, 응원원을 찾아주실줄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함께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나가는것이 우리
인민의 인민관입니다.》

누구도 몰랐다.

새해의 첫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평
양국민, 애육원, 응원원을 찾아주실줄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함께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나가는것이 우리
인민의 인민관입니다.》

누구도 몰랐다.

새해의 첫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평
양국민, 애육원, 응원원을 찾아주

인민적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이들처럼 높이 발양시키자

원장

조혜영동무를 비롯한

과일군인민병원의료원군들

길을 돌아보며 우리는 생각한다.

이들이라고 남보다 조건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

남다른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군안의 인민들의 건강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투철한 판점이었다.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사회 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그러

해야 하지만 특히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생명으로 지녀야 할 보건일군들이야말로 투철한

인민관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 나날 수십명의 의료일군들이

이날 길에는 금의 의사자리를 받았으며 여러분이 학위소유자로 자리

났다.

이들이 걸어온 10여년간의

진정이 뿌리가 되여 안아울린

진정한 꽃이 아니겠는가.

인민에 대한 이들의 불같은

진정을 말해 주는 또 하나의

풍경이 있다. 약품창고와 함께

병원의 지팡으로 불러우는 부식물

지극한 정성도 생기고 불같은

현신도 생긴다.

그 진정은 민족을 모르는 법이

어서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환자

들을 위한 좋은 일은 한가지라

더하기 위해 뻗 머리를 쓰고

사색을 기울인다.

병원에서 일어나는 삼복철이면

임원 환자들에게 단고기 죽을 풀

여주는 것을 어길 수 없는 철칙으

로 삼고있는 사실, 환자들의 생

일상은 물론 일월에 있는 어린이

들의 돌생일상도 정성껏 차려주

어 부모들을 쾌적한 환경으로

원장이 밤기하고 당조직파의 토의

밀에 시작한 원로기자조성 전투

는 일부 종업원들 속에서 론난을

불러일으켰다.

우리가 의료일군이 고집하고

병원의 한 의료일군은 우리에게

원장은 평양이 통화화점의 단풍

송님인데 평양에 출장가는 기회만

생기면 어김없이 그곳에 들리

어린이들의 쟁쟁한 사람들을 사자

방에 혼란을 일으킨다. 그때

우리나라에 혼란한 악초들을

리용하여 자제에 만든 각종

의약품들이 여기에 있다.

이곳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고난의 나날에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환자치료에 필요한 약들이

모자라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

나 맥을 놓고 우는 소리를 하면

인민들이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생

각이 이들로 하여금 부족되는

약물을 자체의 힘으로 보충하기

위한 전투에 스스로 나서게 하

였다.

조금만 풀을 들면 고려약간

을 능히 자제에 생산할 수

있다는 신심을 안고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약물생산토대를

원만히 꾸려 필요한 약들을 차

제로 만들기 위한 원바람을 일

으켰다.

정성의 힘은 강하다. 지난

10여년간 병원에서는 10여

의 약초를 확보하였다. 연구사

업을 실시시켜 약물생산을 정상

화할 수 있는 기술적 첨단도 원

만히 해제하여 해마다 백수십종

의 의약품을 몽고기

라고 불러주신 그 혁명일화는

평양개간전투에 동원된 병원종

임원들의 가슴을 뜨겁게

뜨겁게 했던 것이다.

그러고 보면 언제나 조제실의

제작사가 약사용법에 대해

묻는 환자에게 설의없이 대답을

하였다가 원장에게서 단단히

흔흔이 났다는 이야기로 결코

무심히 물을 듣지 않았다.

투철한 일군들이 이곳 병원의

일군들의 사업과 생활의 기준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발붙이고 선 흐름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그것이 다른 아인민

에 대한 불같은 전정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파일군인민병원

의료일군들이 피워가는 지극한

정성은 일군에 대한 존경과

우리가 원장에게서 얼마나 기뻐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원장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있었다.

진심은 전진을 염두로 했던 범

환자들을 단순한 치료대상이 아

나니 정을 주고 사랑을 광고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원장에게서는

이렇게 덧붙이였다.

우리 농장은 살벌립들만이

아니라 관리위원회의 사무실들

과 과학기술보급실을 비롯하여

소재지의 모든 건물들의 조명을

태양빛전지에 의한 자연에너지

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정말 듣는 것마다 보는 것마다

내놓고 자랑만한 한 성과였다.

농장을 떠나기 전에 앞에 농장원

들은 자기들의 농장을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려주기 위해 애써

노력한 구역당책임일군의 모습은

이것을 우리 시대 보건일군들의

심장속에 뿌리내리고 있다.

본사기자 강진형

본사기자 방경찬

나날이 흥해가는 사회주의문화농촌

형제산구역 천남새전문화동장을 찾아서

그처럼 마음쓰이며 눈비오는

날이나 바람부는 날에도 지어

자신의 탄생일까지 온 나라 행정

기구를 찾고자 헌신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간 일군들은 투철한 원장의

기운을 넓혀놓고 눈비를 끝까지

기록하고자 노력하였다.

우리가 원장에게서는 일군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전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장에게서는 일군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전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장에게서는 일군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전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장에게서는 일군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전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장에게서는 일군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전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장에게서는 일군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전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장에게서는 일군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전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장에게서는 일군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전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장에게서는 일군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전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장에게서는 일군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전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장에게서는 일군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전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장에게서는 일군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전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장에게서는 일군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전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장에게서는 일군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전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장에게서는 일군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전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헌신하는 것처럼

우

온 한해 남녘땅을 진감시킨 자주통일의 함성

올해는 조국해방 일흔돐이자 민족분렬 70년이 되는 해이다. 가슴深处는 민족분렬의 비극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민족의 강렬한 의지는 남조선에서 벌어진 대중적 투쟁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올해 남조선인민들은 보수당국의 통족대정책을 반대하며 북남판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섰다.

무엇보다도 남조선인민들은 조국해방 일흔돐과 6. 15 광동선언발표 15돐을 조국통일 운동의 성과로 의미있게 맞이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였다.

6. 15 광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1월 말 모임을 가지고 6. 15 광동선언발표 15돐이 되는 올해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으로 민족의 준비사업을 적극 다그쳤다. 남조선당국의 악랄한 방해책으로 하여 민족공동행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지만, 단체들은 자체로 행사를 중의 참가하게 하며 진행된 8. 15 광동선언발표 15돐을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각계 단체들이 분별과 대립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의 북남관계를 점쳐가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 것을 각계에 열렬히 호소하였다.

역사적인 6. 15 광동선언발표 15돐을 맞으며 북남관계법 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 때 한 광화국부성명이 발표되자 남조선내부가 범서되었다. 성명이 발표되자 CBS, 연합

뉴스», 세계일보», 매일경제», 뉴스1»을 비롯한 언론들은 일제히 『북 정부성명발표... 남북장국간 대화용의』, 『북 정부성명은 최고권위』, 『남북장국간 대화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등의 제목으로 신속히 보도하였다. 언론들은 북이 6. 15 광동선언발표 15돐을 즐으며 성명을 통하여 당국간 대화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였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정부성명』이 이라는 형식으로 하면서 북과 광동선언으로 북남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마련된 것인 데 남조선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은 6. 15 광동선언발표 15돐을 기록으로 민족공동행사를 성대히 진행함에 대한 통족의 제의와 성의에 적극 호응하여 행사의 원만한 실현을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다그쳤다. 남조선당국의 악랄한 방해책으로 하여 민족공동행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지만, 단체들은 자체로 행사를 중의 참가하게 하며 진행된 8. 15 광동선언발표 15돐을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각계 단체들이 분별과 대립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의 북남관계를 점쳐가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 것을 각계에 열렬히 호소하였다.

역사적인 6. 15 광동선언발표 15돐을 맞으며 북남관계법 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 때 한 광화국부성명이 발표되자 남조선내부가 범서되었다. 성명이 발표되자 CBS, 연합

동일념원이라며 손행사와 윤산의 로동자, 대학생, 예술인 6. 15 명이 펼친 대 학창무대 등은 6. 15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를 마련해나가려는 남녘의 믿음을 잘 보여주었다. 조국해방 일흔돐에 즐음하여 남조선에서는 조국통일기운이 다시금 새차게 물어왔다. 각계 단체들은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조국통일기운은 보수당국이 미국의 대조선고립압박대원들,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 1만여명이 참가한 8. 15 광동선언집회에서는 대형통일기구가 날리되는 속에 『전정한 해방을 이룩하고 평화통일시대를 열어나가자!』는 함성이 높아져 물려나왔다. 민주로 풍, 참여연대, 친환경연대 등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비롯한 1만여명의 각계 층 군중의 참가하게 하며 진행된 8. 15 광동선언집회에서도 단체들로 풍물과 함께 힘을 넣어 아한다고 한걸같이 요구해 나섰다. 그들속에서는 『비례대신 대화를!』, 『5. 24조치』 대신 『남북 경제 협력, 금강산 판 광을!』, 『(동일 박 봉) 대신 6. 15, 10. 4 선언실천을!』 등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올해에 남조선인민들은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며 동족대결소동에 갈수록 기습을 부린 보수당국은 멀미를 더니 단체들은 집회를 개최하여 『제3차 대통일 투쟁을 힘주기 위한 대중적 투쟁을 힘주기 개최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정초부터 악랄하게 감행된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비라살포행위의 후파에 대해 거瘪하면서 당국이 비라도발을 제지시키지 않으면

서 북에 대해 그 무슨 『전정성』을 윤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하였다. 남조선 각계는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성의와 노력을 불구하고 판계 개선을 적극 지지하면서 그것을 추동해나가기 위한 각계 단체들의 활동도 출기하게 되었다. 특히 8월 북남교류증진금집출판과 판권한 공동보도문이 발표된 후 남조선 각계는 당국이 구제의 연한 『대북정책』에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절회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한치도 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은 보수당국이 미국의 대조선고립압박대원들,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 1만여명이 참가한 8. 15 광동선언집회에서는 대형통일기구가 날리되는 속에 『전정한 해방을 이룩하고 평화통일시대를 열어나가자!』는 함성이 높아져 물려나왔다. 민주로 풍, 참여연대, 친환경연대 등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비롯한 1만여명의 각계 층 군중의 참가하게 하며 진행된 8. 15 광동선언집회에서도 단체들로 풍물과 함께 힘을 넣어 아라고 한걸같이 요구해 나섰다. 그들속에서는 『비례대신 대화를!』, 『5. 24조치』 대신 『남북 경제 협력, 금강산 판 광을!』, 『(동일 박 봉) 대신 6. 15, 10. 4 선언실천을!』 등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올해에 남조선인민들은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며 동족대결소동에 갈수록 기습을 부린 보수당국은 멀미를 더니 단체들은 집회를 개최하여 『제3차 대통일 투쟁을 힘주기 위한 대중적 투쟁을 힘주기 개최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정초부터 악랄하게 감행된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비라살포행위의 후파에 대해 거瘪하면서 당국이 비라도발을 제지시키지 않으면

화시킬것이라고 격분을 토로하면서 불법적이며 위험한 모략기구를 강력한 투쟁으로 반드시 철수시킬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올해에 남조선에서는 북남사의 대화와 판계 개선을 적극 지원하면서 그것을 추동해나가기 위한 각계 단체들의 활동도 출기하게 되었다. 특히 8월 북남교류증진금집출판과 판권한 공동보도문이 발표된 후 남조선 각계는 당국이 구제의 연한 『대북정책』에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절회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한치도 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은 보수당국이 미국의 대조선고립압박대원들,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 1만여명이 참가한 8. 15 광동선언집회에서는 대형통일기구가 날리되는 속에 『전정한 해방을 이룩하고 평화통일시대를 열어나가자!』는 함성이 높아져 물려나왔다. 민주로 풍, 참여연대, 친환경연대 등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비롯한 1만여명의 각계 층 군중의 참가하게 하며 진행된 8. 15 광동선언집회에서도 단체들로 풍물과 함께 힘을 넣어 아라고 한걸같이 요구해 나섰다. 그들속에서는 『비례대신 대화를!』, 『5. 24조치』 대신 『남북 경제 협력, 금강산 판 광을!』, 『(동일 박 봉) 대신 6. 15, 10. 4 선언실천을!』 등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올해에 남조선인민들은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며 동족대결소동에 갈수록 기습을 부린 보수당국은 멀미를 더니 단체들은 집회를 개최하여 『제3차 대통일 투쟁을 힘주기 위한 대중적 투쟁을 힘주기 개최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정초부터 악랄하게 감행된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비라살포행위의 후파에 대해 거瘪하면서 당국이 비라도발을 제지시키지 않으면

화시킬것이라고 격분을 토로하면서 불법적이며 위험한 모략기구를 강력한 투쟁으로 반드시 철수시킬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올해에 남조선에서는 북남사의 대화와 판계 개선을 적극 지원하면서 그것을 추동해나가기 위한 각계 단체들의 활동도 출기하게 되었다. 특히 8월 북남교류증진금집출판과 판권한 공동보도문이 발표된 후 남조선 각계는 당국이 구제의 연한 『대북정책』에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절회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한치도 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은 보수당국이 미국의 대조선고립압박대원들,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 1만여명이 참가한 8. 15 광동선언집회에서는 대형통일기구가 날리되는 속에 『전정한 해방을 이룩하고 평화통일시대를 열어나가자!』는 함성이 높아져 물려나왔다. 민주로 풍, 참여연대, 친환경연대 등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비롯한 1만여명의 각계 층 군중의 참가하게 하며 진행된 8. 15 광동선언집회에서도 단체들로 풍물과 함께 힘을 넣어 아라고 한걸같이 요구해 나섰다. 그들속에서는 『비례대신 대화를!』, 『5. 24조치』 대신 『남북 경제 협력, 금강산 판 광을!』, 『(동일 박 봉) 대신 6. 15, 10. 4 선언실천을!』 등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올해에 남조선인민들은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며 동족대결소동에 갈수록 기습을 부린 보수당국은 멀미를 더니 단체들은 집회를 개최하여 『제3차 대통일 투쟁을 힘주기 위한 대중적 투쟁을 힘주기 개최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정초부터 악랄하게 감행된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비라살포행위의 후파에 대해 거瘪하면서 당국이 비라도발을 제지시키지 않으면

화시킬것이라고 격분을 토로하면서 불법적이며 위험한 모략기구를 강력한 투쟁으로 반드시 철수시킬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올해에 남조선에서는 북남사의 대화와 판계 개선을 적극 지원하면서 그것을 추동해나가기 위한 각계 단체들의 활동도 출기하게 되었다. 특히 8월 북남교류증진금집출판과 판권한 공동보도문이 발표된 후 남조선 각계는 당국이 구제의 연한 『대북정책』에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절회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한치도 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은 보수당국이 미국의 대조선고립압박대원들,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 1만여명이 참가한 8. 15 광동선언집회에서는 대형통일기구가 날리되는 속에 『전정한 해방을 이룩하고 평화통일시대를 열어나가자!』는 함성이 높아져 물려나왔다. 민주로 풍, 참여연대, 친환경연대 등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비롯한 1만여명의 각계 층 군중의 참가하게 하며 진행된 8. 15 광동선언집회에서도 단체들로 풍물과 함께 힘을 넣어 아라고 한걸같이 요구해 나섰다. 그들속에서는 『비례대신 대화를!』, 『5. 24조치』 대신 『남북 경제 협력, 금강산 판 광을!』, 『(동일 박 봉) 대신 6. 15, 10. 4 선언실천을!』 등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올해에 남조선인민들은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며 동족대결소동에 갈수록 기습을 부린 보수당국은 멀미를 더니 단체들은 집회를 개최하여 『제3차 대통일 투쟁을 힘주기 위한 대중적 투쟁을 힘주기 개최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정초부터 악랄하게 감행된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비라살포행위의 후파에 대해 거瘪하면서 당국이 비라도발을 제지시키지 않으면

화시킬것이라고 격분을 토로하면서 불법적이며 위험한 모략기구를 강력한 투쟁으로 반드시 철수시킬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올해에 남조선에서는 북남사의 대화와 판계 개선을 적극 지원하면서 그것을 추동해나가기 위한 각계 단체들의 활동도 출기하게 되었다. 특히 8월 북남교류증진금집출판과 판권한 공동보도문이 발표된 후 남조선 각계는 당국이 구제의 연한 『대북정책』에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절회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한치도 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은 보수당국이 미국의 대조선고립압박대원들,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 1만여명이 참가한 8. 15 광동선언집회에서는 대형통일기구가 날리되는 속에 『전정한 해방을 이룩하고 평화통일시대를 열어나가자!』는 함성이 높아져 물려나왔다. 민주로 풍, 참여연대, 친환경연대 등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비롯한 1만여명의 각계 층 군중의 참가하게 하며 진행된 8. 15 광동선언집회에서도 단체들로 풍물과 함께 힘을 넣어 아라고 한걸같이 요구해 나섰다. 그들속에서는 『비례대신 대화를!』, 『5. 24조치』 대신 『남북 경제 협력, 금강산 판 광을!』, 『(동일 박 봉) 대신 6. 15, 10. 4 선언실천을!』 등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올해에 남조선인민들은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며 동족대결소동에 갈수록 기습을 부린 보수당국은 멀미를 더니 단체들은 집회를 개최하여 『제3차 대통일 투쟁을 힘주기 위한 대중적 투쟁을 힘주기 개최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정초부터 악랄하게 감행된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비라살포행위의 후파에 대해 거瘪하면서 당국이 비라도발을 제지시키지 않으면

화시킬것이라고 격분을 토로하면서 불법적이며 위험한 모략기구를 강력한 투쟁으로 반드시 철수시킬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올해에 남조선에서는 북남사의 대화와 판계 개선을 적극 지원하면서 그것을 추동해나가기 위한 각계 단체들의 활동도 출기하게 되었다. 특히 8월 북남교류증진금집출판과 판권한 공동보도문이 발표된 후 남조선 각계는 당국이 구제의 연한 『대북정책』에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절회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한치도 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은 보수당국이 미국의 대조선고립압박대원들,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 1만여명이 참가한 8. 15 광동선언집회에서는 대형통일기구가 날리되는 속에 『전정한 해방을 이룩하고 평화통일시대를 열어나가자!』는 함성이 높아져 물려나왔다. 민주로 풍, 참여연대, 친환경연대 등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비롯한 1만여명의 각계 층 군중의 참가하게 하며 진행된 8. 15 광동선언집회에서도 단체들로 풍물과 함께 힘을 넣어 아라고 한걸같이 요구해 나섰다. 그들속에서는 『비례대신 대화를!』, 『5. 24조치』 대신 『남북 경제 협력, 금강산 판 광을!』, 『(동일 박 봉) 대신 6. 15, 10. 4 선언실천을!』 등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올해에 남조선인민들은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며 동족대결소동에 갈수록 기습을 부린 보수당국은 멀미를 더니 단체들은 집회를 개최하여 『제3차 대통일 투쟁을 힘주기 위한 대중적 투쟁을 힘주기 개최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정초부터 악랄하게 감행된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비라살포행위의 후파에 대해 거瘪하면서 당국이 비라도발을 제지시키지 않으면

화시킬것이라고 격분을 토로하면서 불법적이며 위험한 모략기구를 강력한 투쟁으로 반드시 철수시킬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올해에 남조선에서는 북남사의 대화와 판계 개선을 적극 지원하면서 그것을 추동해나가기 위한 각계 단체들의 활동도 출기하게 되었다. 특히 8월 북남교류증진금집출판과 판권한 공동보도문이 발표된 후 남조선 각계는 당국이 구제의 연한 『대북정책』에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절회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한치도 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은 보수당국이 미국의 대조선고립압박대원들,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 1만여명이 참가한 8. 15 광동선언집회에서는 대형통일기구가 날리되는 속에 『전정한 해방을 이룩하고 평화통일시대를 열어나가자!』는 함성이 높아져 물려나왔다. 민주로 풍, 참여연대, 친환경연대 등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비롯한 1만여명의 각계 층 군중의 참가하게 하며 진행된 8. 15 광동선언집회에서도 단체들로 풍물과 함께 힘을 넣어 아라고 한걸같이 요구해 나섰다. 그들속에서는 『비례대신 대화를!』, 『5. 24조치』 대신 『남북 경제 협력, 금강산 판 광을!』, 『(동일 박 봉) 대신 6. 15, 10. 4 선언실천을!』 등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올해에 남조선인민들은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며 동족대결소동에 갈수록 기습을 부린 보수당국은 멀미를 더니 단체들은 집회를 개최하여 『제3차 대통일 투쟁을 힘주기 위한 대중적 투쟁을 힘주기 개최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정초부터 악랄하게 감행된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비라살포행위의 후파에 대해 거瘪하면서 당국이 비라도발을 제지시키지 않으면

화시킬것이라고 격분을 토로하면서 불법적이며 위험한 모략기구를 강력한 투쟁으로 반드시 철수시킬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올해에 남조선에서는 북남사의 대화와 판계 개선을 적극 지원하면서 그것을 추동해나가기 위한 각계 단체들의 활동도 출기하게 되었다. 특히 8월 북남교류증진금집출판과 판권한 공동보도문이 발표된 후 남조선 각계는 당국이 구제의 연한 『대북정책』에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절회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한치도 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은 보수당국이 미국의 대조선고립압박대원들,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 1만여명이 참가한 8. 15 광동선언집회에서는 대형통일기구가 날리되는 속에 『전정한 해방을 이룩하고 평화통일시대를 열어나가자!』는 함성이 높아져 물려나왔다. 민주로 풍, 참여연대, 친환경연대 등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비롯한 1만여명의 각계 층 군중의 참가하게 하며 진행된 8. 15 광동선언집회에서도 단체들로 풍물과 함께 힘을 넣어 아라고 한걸같이 요구해 나섰다. 그들속에서는 『비례대신 대화를!』, 『5. 24조치』 대신 『남북 경제 협력, 금강산 판 광을!』, 『(동일 박 봉) 대신 6. 15, 10. 4 선언실천을!』 등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올해에 남조선인민

